

## ‘구로사랑상품권’ 110억 규모 추가 발행

12일 낮 12시부터 1인당 70만원 한도 1,5,10만원 3종류  
할인율 10%·소득공제 30% 혜택... 관내 1만1180곳서 사용

구로구가 오는 12일 ‘구로사랑상품권’을 11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구는 “주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구로사랑상품권’을 추가로 판매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추가 발행은 지난 2월 발매한 180억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이 조기 판매 완료에 따른 2차 발행이다.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 상품권인 ‘구로사랑상품권’은 1, 5, 10만원 3개 종류가 발행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1만1180곳에서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발행은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할인 구매 한도는 1인당 70만원(보유한도 200만원)이다.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현금 63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결제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주어진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구입은 낮 12시부터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제로페이

온, 010제로페이, 유비페이, 신한솔(SOL),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Syrup Wallet, 농협상호금융 콕뱅크 등 20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지난해 4월 50억원, 7월 50억원, 9월 35억원, 올해 2월 180억원 등 총 315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모두 조기 판매 완료됐다.



구로구가 오는 12일 ‘구로사랑상품권’을 11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구는 주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구로사랑상품권’을 추가로 판매한다. 상품권은 1만원, 5만원, 10만원 3종류로 체크페이 등 20여개 앱을 통해 판매된다.

김한수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 서울 자치구 유일 쏘 분야 ‘우수상’

공시제·우수사업 전부문 수상  
각종 평가서 12년 연속 수상

구로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시제’와 ‘우수사업’ 전 분야에 걸쳐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구로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량실직을 막기 위해 자치구 최초로 실시한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777개 업체, 4,000여명에 6억2,0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1,120여개 업체, 5,580여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구로구와 서울교통공사가 협력해 천왕역사 지하 1층에 조성한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름’ 역시 호평을 받았다. 2020년 5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4,787명이 이용한 청년이름은 4차 산업 관련 IT교육, 취업

스터디, 기업 연계 활동,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과 AI/VR 면접체험관, G밸리 일자리 매칭센터 운영으로 청년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매년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온라인 채용박람회·해외 수출상담회, 맞춤형 취업교육,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목표치 1만 3,500개보다 많은 2만1,54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밖에도 구는 기업 수요에 따라 연령·상황별 맞춤 취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교실, 중장년 대상 경비원, 마을버스 운전기사 양성 과정, 중장년 재취업 토탈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우수사업 부문’에서는 ‘G밸리 특화 고용환경 개선과 AIoT산업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로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기업들의 고용환경과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향상(스케일업) 기반을 조성했다. <채홍길 기자>

<2면으로 계속>

제31회  
**구로구민상 후보자 추천**

접수기간  
**2021. 7. 12. ~ 8. 13. 18:00 까지**

<b>추천분야</b>	9개부문 (봉사, 효행, 문화예술, 교육, 생활체육, 지역사회발전, 안전, 경제발전, 환경)	<b>자격기준</b>	시상일(2021.9.29.)기준 구로구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단, 현저한 공익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 추천제외 대상: 동일공적으로 구민상을 수상한자 등
<b>추천권자</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 - 부문별 관계 기관장 및 관계 단체장 - 구의원 2인이상이 추천 - 구민 30인이상이 추천 - 초·중·고 학교장 및 대학의 총(학)장	<b>제출서류</b>	추천서 및 공적조사 각 1부 이력서, 각서 및 동의서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것) 공적 증빙서류(원본 제출) 각 1부 * 서식: 각 동주민센터 비치, 구 홈페이지 게시 * 서류는 20매 이내로 제출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b>접수방법</b>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2021.8.13.(금)18:00까지) 방문접수: 구청 자치행정과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우편접수: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3층 자치행정과 구민상 담당자 앞 (우편번호 08284) 이메일접수: soheeya@guro.go.kr	<b>시 상</b>	2021. 9. 29.(수) 예정 ‘2021구로G페스티벌’ 개막식 행사시 시상

문의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 860-2497

**구로구**

# ‘신구로선’ 4차 국가철도망 확정

## 시흥대야~항동~온수동~궁동~개봉1동~고척2동~양천 목동 연결

### 완공편 기존 45분서 15분으로 대폭 단축

구로구 서남부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신구로선(시흥 대야~양천 목동) 구간 사업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노선도 참조>



이에 따라 시흥대야~양천 목동역양천구까지 기존 45분에서 15분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되는 등 현재 운행 중인 서해선과 연결돼 구로 서남부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본지 4월 30일자 1면 보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6월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확정 발

표했다. 신구로선 노선을 보면 시흥대야⇒항동⇒온수동⇒궁동⇒개봉1동⇒고척2동⇒양천 목동역을 잇는 12.4km 복선전철 노선이다. 신구로선 노선이 확정돼 기존 시흥 대야에서 양천 목동역까지 45분에서 15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2019년 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철도망의 문제점과 국토공간구조 변화 및 기후변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수차례 지자체 의견수렴, 비전·목표·추진방향 등 전문가 토론회, 개별 사업별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확정됐다. <채홍길 기자>

# 구로구, 일자리 서울 자치구 유일 쏘 분야 '우수상'

<1면에서 계속> 그 결과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실시로 50개 기업 고용지원금 수령액 연 4억200만원 증가, 신규 채용인원 260명 증원 등의 결실을 맺었다. 구로구는 이로써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각종 일자리 평가에서 1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2010년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지역일자리 정책 브랜드사업 부문 우수상, 종합대책 부문 장려상을 시작으로 2011년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전국 경진대회 우수상, 2012년 전국 일자리 창출 종합평가 최우수상, 2013년 전국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우수, 2014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평가 우수,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사회적경제 부문 최우수, 2016년과 2017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특별상과 우수상, 2018년 목표공시제 부문 특별상, 2019년과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월명 일자리지원과장은 "노력한 결과가 12년 연속 수상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아동폭력학대예방 추진위 고문 맡아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달 25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아동폭력학대예방추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날 위촉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옥심 아동폭력학대예방추진위원장이 구로구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위촉장을 수여했다.<사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사회의 각종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적 지원과 심리적 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특히,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의 예방을 위해 협회 내에서 지난 해에 아동폭력학대 예방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시적 실천운동과 지역사회 캠페인, 아동안전예방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박동웅 의장은 평소 아동 보호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동을 위한 정책마련에 애써왔으며 개용어린 이공원 초등학생 폭행사건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였고, 어린이집연합회, 지역아동센터장과의 간담회 등 각종 간담회를 통해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아동폭력학대 예방 등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유권 기자>

# 구로구 과장급 15명 신규·승진·전보 인사

## 6~8급 54명 승진인사도 단행

- 감사실장 김태성
-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 사회복지과장 조은령
- 교육지원과장 신상의
-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 장) ▲개봉1동장 임진경(사회복지과장) ▲구의회 전문위원 김재한(교통행정과 팀장) ▲민원여권과장 장현실(민원여권과 팀장) ▲도시재생과장 김안순(기획예산과 팀장) ▲위생과장 안용호(감사실 팀장) ▲신도림동장 김동규(청소행정과 팀장) ▲구로1동장장우철(스마트도시과 팀장) ▲수궁동장 전경심(환경과 팀장)

- △박진혁(구의회사무국)△조운경(감사실)△김은지(재무과)△최지민(복지정책과)△최은실(여성정책과)△장한솔(어르신청소년과)△허미희(자동차관리과)△주형우(문화관광과)△김상진(민원여권과)△우혜정(민원여권과)△박시혜(위생과)△사혜인(구로5동)△김민성(고척2동)△구새롬(개봉2동)△강경미(개봉3동)

구로구는 7월1일자로 개방형 직위인 감사실장에 김태성(2년 임기제 행정사무관) 전 구로구청 주차관리과장을 신규 발령했다. 또 복지정책과장에 황의삼 구로1동장을, 사회복지과장에 조은령 수궁동장을, 교육지원과장에 신상의 신도림동장을, 교통행정과장에 박순희 개봉1동장을, 구정연구반장에 정영실 구로3동을 발령하는 등 5급 사무관 과장급 15명을 신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아울러 6급~8급 54명에 대한 승진인사도 함께 발령했다. 이밖에 과장급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전 근무부서> ▲구로3동장 이동섭(복지정책과

- ◇행정 7급→6급 승진(11명) △오희원(기획예산과)△권희정(지역경제과)△장미란(여성정책과)△이명희(부동산정보과)△위옥연(건설관리과)△송민경(도시안전과)△이진구(총무과)△김경욱(자치행정과)△양지연(체육진흥과)△민재성(스마트도시과)△양지연(개봉3동)
- ◇세무 7급→6급 승진(1명) △김은숙(징수과)
- ◇사회복지 7급→6급 승진(1명) △정유진(복지정책과)
- ◇전기운영 7급→6급 승진(1명) △진정승(치수과)
- ◇행정 8급→7급 승진(15명)

- ◇세무 8급→7급 승진(1명) △정지희(징수과)
- ◇사회복지 8급→7급 승진(1명) △한창오(여성정책과)
- ◇행정 9급→8급 승진(16명) △장희원(홍보전산과)△이예선(기획예산과)△고민경(지역경제과)△장하연(지역경제과)△김태한(주택과)△김민지(도시안전과)△이경진(교통행정과)△장예지(자치행정과)△윤선희(문화관광과)△주현우(청소행정과)△주상규(보건행정과)△안재유(신도림동)△한나래(구로2동)△오민경(개봉1동)△유혜지(개봉2동)△유영석(오류1동)
- ◇세무 9급→8급 승진(1명) △정경진(부과과)
- ◇사회복지 9급→8급 승진(6명) △신유리(복지정책과)△김형준(어르신청소년과)△김효림(개봉1동)△박철용(오류1동)△남궁선(수궁동)△박규리(수궁동).

# 구로구 조직개편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신설

## 7월1일자로... 돌봄SOS센터 사업 확대 운영

구로구가 7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에 돌봄지원팀을 신설했다. 구는 "지나해 설치해 운영 중인 '돌봄SOS센터' 사업을 확대해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기획팀, 희망복지팀, 복지지원팀, 통합조사관리 1·2팀 등 기존 5개 팀으로 운영되던 복지정책과에 돌봄지원팀이 추가됐다. 돌봄지원팀은 ▲일시제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정보상담

▲주거편의 ▲동행지원 등 기존 6대 서비스에 ▲건강지원 ▲안부확인 서비스를 추가해 총 8대 서비스로 돌봄SOS센터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확대된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돌봄매니저의 모니터링과 컨설팅, 민간 협력 거버넌스 운영 체계도 강화한다. 황의삼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돌봄공백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 02)830-0905  
메일 :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 유희상 발행인 : 김유권  
주간 : 한만수 편집국장 : 채홍길  
등록번호 : 서울 다-5105  
구독 / 광고문의 010-9096-1144

구독료 : 월 5,000원 : 연 50,000원  
기사제보 : 02)830-0905  
계좌번호 :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 “천왕산가족캠핑장서 밤하늘 별을 세며 오순도순 추억을”

7월도 벌써 7일 소서(小暑)가 지났다. 올해 여름 장마는 7월 초에 늦장마가 시작 된다고 한다. 그 어느해 보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 비가 내린 후에는 땀별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와 직장일, 사업 등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충전이 필요하다. 불어오는 바람에 실린 꽃향기를 맡고 지저귀는 새소리, 흐르는 물소리도 듣고 싶다.

우리는 자연에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도시를 벗어나 멀리 산과 들로 떠난다. 그러나 도심에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힐링쉼터’가 있다. 바로 구로 관내 ‘천왕산 가족캠핑장’이다.



도심에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힐링쉼터’인 ‘천왕산 가족캠핑장’ 전경. 지난해 9월 개장한 ‘천왕산 가족캠핑장’은 향동 149-1번지 일대 2만 7,550㎡ 규모로 조성됐다. 일반 야영장 12면, 오토 야영장 18면 등 데크 30면이 설치됐고 화장실·샤워장·식기세척장·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전기·통신시설도 갖췄다.

지난해 9월 개장한 ‘천왕산 가족캠핑장’은 향동 149-1번지 일대에 2만 7,550㎡ 규모로 조성됐다. 일반 야영장 12면, 오토 야영장 18면 등 데크 30면이 설치됐고 화장실·샤워장·식기세척장·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전기·통신시설을 갖췄다. 소나무·사철나무 등 21종의 나무도 1만6,385그루가 심어져 있다.

캠핑장 한쪽에는 천왕산과 건지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도 있다. 산 정상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고 경사가 완만해 산책하듯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산길을 걷다 보면 꽃향기와 새소리, 스치는 바람 등 캠핑장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것들이 오

## 야영장 12면, 오토 야영장 18면 등 데크 30면 화장실·샤워장·식기세척장·주차장 등 편의시설 갖춰 ‘천왕산 생태숲’서 조류서식처, 생태연못도 볼만 캠핑장서 천왕산-건지산 정상까지 등산로도 조성

감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어느새 탁 트인 전망대에 이른다.

캠핑장 예약은 매달 10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다

음 달 분을 예약할 수 있다. 이용료는 1박에 3만5,000원(1면), 이용시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면씩 거리를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천왕산 캠핑장에서는 ‘천왕산 생태숲’도 즐길 수 있다. 구로구가 경작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향동 148번지 일대 ‘천왕산 생태숲’을 조성했다.

9,100㎡ 규모의 생태숲은 불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조류서식처, 저류습지, 생태연못을 조성해 날개띠좁잠자리,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의 목표종이 복원된 공간에 서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나무·산수유·이팝나무 등 교목 279주, 사철나무·진달래·산철쭉 등 관목 5,100주, 구절초·붓꽃·꽃창포 등 초화류 8,740본도 식재됐다.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생태놀이터, 여유를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루터기 의자 등이 갖춰져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다.

지난 5월 말엔 야외 인공암벽장도 만들어졌다. 인공암벽장은 길이 32m, 높이 4~6m 규모로 난이도에 따라 초급·중급·고급 3개의 코스로 나뉘어져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등반을 즐길 수 있게 조성됐다. 인공암벽장은 오는 9월부터 암벽전문가를 초청, 초등생을 상대로 ‘암벽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로구는 천왕산을 방문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욱 가까이 마주하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태탐방·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농업체험장, 책터 등 체험공간을 추가로 설치해 이 일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무덥고 코로나19로 지친 요즘, 자연에 기대고 싶지만 멀리 떠나기가 부담스럽다면 천왕산 가족캠핑장과 생태숲을 추천한다.

이번 주 캠핑, 도심 속 천왕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문의 : 구로구시설관리공단 ☎ 2066-7004. <한만수 기자>



‘천왕산 가족캠핑장’ 인근의 생태숲.



캠핑장 인근의 인공암벽장. 인공암벽장은 9월부터 운영한다.

www.songlimga.com

##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 구로구의회 서호연 의원 '의정대상' 수상

## '제 18회 지역신문의 날'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기여 공로

구로구의회 서호연 의원이 지난 달 29일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개 지역신문사가 가입되어 있는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행정대상, 의정대상, 자랑스런공무원상,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등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다.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서호연 의원이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의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상



구로구의회 서호연 의원이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정립에 기여한 바를 인정, 수상자로 선정했다.

서 의원은 구로구의회 3선의원

으로 제5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과 제7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제8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호연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주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임했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고대구로병원 운영훈 교수, 복지부장관 표창

고대구로병원은 운영훈 권역응급의료센터장(사진·응급의학과 교수)이 '2021년 코로나19 대응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운영훈 센터장은 고대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책임자로서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를 1년 이상 운영하며, 코로나19 감염 대응에 적극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운영훈 센터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발열환자 및 의심환자 내원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개발·



적용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대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장비 등을 탄력적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유권 기자>

#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남부보훈지청 '호국보훈의 달'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서울남부보훈지청(지청장 양홍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30일 매한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식' 개최했다.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개최하고 있다.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대외유공인사, 모범취업자, 복지증진공로자 총 15명에게 행안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 표창 등 각 분야별로 포상을 실시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30일 매한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구로구지회장 겸 구로보훈단체협의회회장이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받았다.

행사를 주관한 양홍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이번 포상식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조재화 구로구맥가이버봉사단장 '사회봉사대상' 수상

##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집수리봉사 및 맞반찬 나누기운동 공로

구로구 맥가이버봉사단 조재화 단장이 지난 6월 29일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조 단장은 전국 340개 지역신문이 가입되어 있는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날 기념식에서 상을 받았다.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조재화 단장이 지역사회 봉사와 86년 아시안게임 및 88년 하계올림픽때부터 시작한 봉사가 현재까지 35여년간 오로지 자신보다 이웃을 위



구로구맥가이버봉사단 조재화 단장이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해 배려하는 진정한 봉사자이다 또한 770회 지역골목 청소(월 4

회),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진시 검진 안내 봉사(월 4회), 새마을지도자로 봉사, 주거환경개선봉사, 티뷰크와 함께 매년 김장김치 담그기봉사, 어르신들 무료 한방치료 받을수 있도록 안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장학회를 운영, 장학금을 매년 4회 지급해 오고 있다.

조재화 단장은 "이렇게 큰상을 받아 영광 스텁습니다. 그동안 봉사를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봉사란 누군가는 해야하고 솔선 수범 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유권 기자>

# 신도림새마을금고 '사회공헌 대상 우수상' 수상

## '찾아가는 금융, 함께하는 금융 MG새마을금고'

전국 1,400여개 지점 중 '모범 점포'로 선정  
예금고 1천6백억에 15,000명 조합원 '뽕뽕' 문화·복지·후생 등 '사회공헌사업'에 앞장



이사장 최재무 외 임직원 일동

# 구립공동종합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스마트 토이로봇, 건강복지라이더 사업 등 다양한 활동 펼쳐

구로구 소재 구립공동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은 어르신 복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관은 2019년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토이 로봇 '부모사랑 효돌'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로봇은 내장된 센서를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교감, 생활·건강관리, 안전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생활체육지도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해 개별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복지서비스 '건강복지라이더' 사업,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



공동종합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오른쪽 이성 구청장, 왼쪽 김선화 관장)

업을 펼치고 있다.

김선화 공동종합사회복지관장은 "어르신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2년에 설립된 구립공동종합사회복지관(오리로22길 5)은 어르신, 저소득 가정 등 관내 취약 계층을 위해 밀반찬·의류·의료비 지원, 혹한·혹서 대비 희망나눔,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 유희상의 열린 칼럼



우리의 음주 문화는 술상 앞에 앉으면 어른께 술잔을 먼저 권한다. 어른께 술을 권하는 데는 정중한 몸가짐을 하여 두 손으로 따라 올린다. 오른손으로 술병을 잡고, 왼손은 오른팔 밑에 대고, 옷소매 또는 옷자락이 음식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따른다. 옛날에는 첫술잔을 받아 마시면 반드시 그 잔을 먼저 상석의 어른께 무릎을 꿇고 올렸

그것은 즐겁게 술을 마시되 심신을 해할 정도로 마시지 않고 술 좌석에서도 술 마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자세다. 음주 문화, 즉 주도(酒道)를 지키면 아무리 많은 술을 마셔도 실수

### 한국인의 음주문화 ㉔

다. 요즘에는 위생적인 면에서 나 간염 등을 고려하여 오히려 그것이 결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반대로 "한잔 올릴까요?"라고 물어서 승낙을 얻고서야 술잔을 올리는 형편이다. 또 윗사람이 "잔은 각자가 놓고 마시자"라고 하면 잔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 술잔을 돌리는 경우에는 술잔을 깨끗이 비우고 나서 안주는 먹지 않고 바로 잔을 상대방에서 돌리되 반드시 오른손으로 드려야 한다. 간혹 안주와 함께 드릴 생각으로 오른손으로는 안주를 들고, 왼손으로 술잔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단히 큰 결례다.

를 할 이유가 없다. 주도의 핵심은 술좌석에서도 예의를 잃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술을 요즈음처럼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마시면 주도가 지켜질 리가 없다. 대낮부터 별정계 취해서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는 젊은 층들을 볼 때 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세상을 즐기며 산다는 것은 온갖 어려움이며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풀어가며 앞으로 걷는 것이다. 술을 취하도록 마신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일수록 주도를 지켜가며 나의 위치를 뒤돌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이다. 〈본지 회장〉

음주문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마켓센터' 위·수탁 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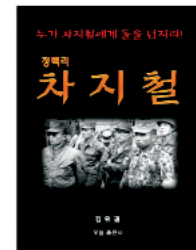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의 푸드뱅크마켓센터 위·수탁 개소식이 지난 6월 30일 푸드뱅크마켓센터에서 열려 이성 구청장, 김한기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시설라운딩을 하고 있다.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의 푸드뱅크마켓센터 위·수탁 개소식이 지난 6월 30일 오전 11시 구로동 푸드뱅크마켓센터에서 이성 구청장, 김한기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장,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성 구청장 인사말,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우수 기부자 감사장 수여, 시설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다.

이성 구청장은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의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구청도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나눔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음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육판 양장/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문의 : 010-9096-1144

#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구로구니눔네트워크 구로사랑 희망이음 캠페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지역사회 기부자와 취약계층 주민을 연결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지역맞춤형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015-176590-13-5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문의 02-867-1695 구로희망복지재단

# ‘유일한길’ 등 8곳 명예도로명 부여

## 역사성·상징성 갖춘 도로... 향후 5년간 사용 주민 공모,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정

“역사 깊은 도로에 명예를 입힌다”

구로구가 최근 관내 도로 8곳에 ‘유일한길’ ‘촉백나무길’ ‘안양천장미길’ 등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

구로구는 “역사성, 상징성을 갖춘 도로를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해 명예도로명 지정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주민 공모,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명예도로명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곳은 ▲유일한길(연동로 295~328) ▲촉백나무길(구로동로7나길 42~1) ▲안양천장미길(안양천동자전거길 581~534) ▲고척스카이로(경인로 409~476) ▲삼농송석도길(오류로8길 1~96) ▲이씨레물리노길(가마산로25길 9-25~가마산로27길 11-1) ▲자절공원길(고척로2나길 104~1) ▲정선옹주길(오리로23길 1~14-48)이다.

‘유일한길’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독립운동가 故유일한 선생(1895~1971)을 기리기 위해 지정했다. 유일한 선생이 1964년 구로 향동에 설립한 유한공업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항동저수지까지 총 길이 640m 구간이다.



구로구가 최근 관내 도로 8곳에 ‘유일한길’ ‘촉백나무길’ ‘안양천장미길’ 등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 구는 주민 공모,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사진은 ‘유일한길’>

‘삼농송석도길’은 역사 보존 ▲안양천장미길, 고척스카이로, 자절공원길은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이씨레물리노길은 해외 자매도시 간 활발한 교류 염원 등을 위해 부여했다. 명예도로명은 향후 5년간 사용된다. 구로구는 해당 도로에 명예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와 도로명주소안내지도 등을 활용해 명예도로명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명예도로명을 통해 그 도로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 특색이 널리 알려져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구로구 ‘마을돌봄조정관’ 2명 임명장 수여

구로구가 마을돌봄조정관 임명장 수여식을 지난 달 30일 구청에서 진행했다.

구는 아동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장을 마을돌봄조정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 대상자는 박은성 개봉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장과 송은주 구로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장 2명이다.

마을돌봄조정관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동 단위의 돌봄기관 수요를 파악하고 아동과 기관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과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발굴·연계 등을 위해



구로구 마을돌봄조정관 임명장 수여식 (오른쪽부터 박은성 개봉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장, 이성구청장, 송은주 구로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장).

지역별 돌봄협의체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성구청장은 “마을돌봄조정관으로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구청도 관내 돌봄기관 확충,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 수시 대비 특강·상담 프로그램 마련

### 40명 대상 7월 19일~8월 9일 온라인 실시 인문·수리논술 특강 7월 31일 1차 자기소개서 상담, 8월 14일 개별집중 진학상담도

구로구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구로구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시 대비 논술 특강과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구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돕기 위해 인문·수리논술 특강, 1대1 맞춤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수시 대비 논술 특강을 실시한다.

수험생 40명(인문논술 20명·수리논술 20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3시간씩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한다.

논술교육 전문가인 (주)기호교육의 변준한 인문논술 강사는 논제 분석, 자료해석 연습, 비판하기·대안제시 등을, 이승만 수리논술 강사는 대학별 출제 특징 분석, 실전 테스트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펼친다.

참여를 원하는 수험생은 7월 13일까지 구로 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edu.guro.go.kr/study)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각종 1대1 상담을 시행한다. 7월 31일에 마련되는 자기소개서 1차 1대1 상담은 6명의 전문상담사가 학생들이 사전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상담신청서 등을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는 프로그램이다.

60명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은 7월 16일까지 구로 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8월에는 구로 학습지원센터 대학진학상담사가 실시하는 개별집중 진학상담과 수시 대비 특별진학상담도 마련한다.

14일에 진행되는 개별집중 진학상담은 학생들의 상담신청서를 고려해 1대1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한다.

수시 대비 특별진학상담은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표를 참고해 온라인 또는 방문 상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개별집중 진학상담은 48명을 대상으로 7월 19일부터 8월 6일까지, 수시 대비 특별진학상담은 60명 연중 상시로 선착순 모집한다. 구로 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대입과정’ 란과 ‘상담’ 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상익 교육지원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한 입시환경 속에서 이번 특강과 상담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에게 맞는 입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명회,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교육지원과 860-3028. <채홍길 기자>

# 항동 푸른수목원에 도서관 건립한다

### 항동 산18-2번지 지상 2층 연면적 908㎡ 규모로 내년 3월 개관

구로구 항동 푸른수목원에 도서관이 들어선다.

구로구는 “주민들이 쉽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 도서관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연에서도 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항동 푸른수목원에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항동 지역은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주민편의시설을 늘려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구로구는 항동 푸른수목원 안에 대규모 도서관을 건립키로 결정하고 2018년부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구유지 토지 교환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성공회대학교와 건축환경연구소 ‘광장’은 도서관 설계를 기증했다.

항동 산18-2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08㎡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도서관은 1층에 어린이 자료실·북카페 시청각실(81석)·전시실, 2층에 일반 자료실(46석)·열람실·미디어실, 옥상에 야외 휴식공간이 마련된다. 푸른수목원의 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외벽에는



항동푸른수목원 내 도서관 건립 착공식이 지난달 29일 열려 관계자들이 시삽식을 하고 있다.

덩굴식물이 식재된다. 국·시비, 구비 등 총 51억6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이달 시작돼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된다.

지난달 29일 항동 푸른수목원 내 도서관 건립 부지에서는 착공식이 열렸다. 이성구청장을 비롯해 한정훈 서울식물원장, 성공회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설계도를 기증한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김원 대표, 성공회대 김기석 총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사업 경과보고, 축하인사 등이 진행됐다. 시삽식과 기념촬영도 이어졌다. <김유권 기자>

#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 점검

구로구가 관내 집단급식소 25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집단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구청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협력해 점검을 펼쳤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존식 보관 적정 여부 ▲조리기구·시설 세척 관리 상태 ▲식자재 보관·유통기한 경과 여부 상태 ▲식품 원산지 표시 여부 ▲영양사·조리원 개인 위생 등이다. <채홍길 기자>

# 관내 신규 확진자 폭증세... 누적 1,712명

## 6-7일 이틀간 32명 늘어... 사망자 12명 그대로

### 서울 확진자 5만2,524명-사망자 518명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7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에 비해 모두 60여명이 늘어나 누적 1,712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구로역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구로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요즘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과 맞물려 7일 0시 현재 서울 하루 최대인 583명과 구로 13명 등 관내서 2일간 3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일주일전에 60여명이 늘어나 누적 1,712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12명은 그대로이며 1,571명이 완치 퇴원, 116명이 치

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489명, 해외입국자 416명 등 모두 905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47명, 오류동 해적집 관련 42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개봉동 옥(유전)사우나 16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4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신도림동 핀

포인트타워(폴센터)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타시군 구 접촉자 1,045명, 해외 입국 14명, 기타(조사중) 45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7일 현재 모두 5만2,524명으로 사망자는 518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남구가 제일 많은 3,528명 ▲송파구 3,162명 ▲강서구 2,508명 ▲관악구 2,401명 ▲노원구 2,387명 ▲서초구 2,340명 ▲은평구 2,221명 ▲중랑구 2,206명 ▲성북구 2,158명 ▲동작구 2,126명 ▲강동구 2,082명 ▲영등포구 2,004명 ▲동대문구 1,906명 ▲양천구 1,796명 ▲마포구 1,765명 ▲광진구 1,753명 ▲구로구 1,712명 ▲도봉구 1,567명 ▲용산구 1,525명 ▲성동구 1,524명 ▲강북구 1,468명 ▲서대문구 1,329명으로 22개구가 1천명을 넘어서다. 이어 ▲종로구 864명 ▲금천구 860명 ▲중구 778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 올 여름 물놀이시설 운영 안한다

## “코로나19 예방” 인양천 물놀이장 등 4개소·분수시설 10개소

### 비접촉형 분수 7곳은 가동중

구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 여름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 미운영 시설은 인양천 물놀이장, 덕의근린공원 물놀이장, 솔길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천왕근린공원 물놀이장 등 4개소다. 구로근린공원 바닥분수 등 접

촉형 분수 시설 10개소도 가동하지 않는다. 단, 거리공원, 미래사랑어린이공원 등 비접촉형 분수 7곳은 지난달 17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물놀이장과 공원 분수 시설 미운영을 결정했다”며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 ‘서울살피미 앱’ 설치로 고독사 위험 ‘사전 차단’

## 중장년 1인 가구 880가구 11월까지... 문자 전송 신속 대응

구로구는 ‘서울살피미 앱’ <사진>을 통해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사전 차단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에 따르면 서울살피미는 화면 터치 등 조작여부를 감지해 6~72시간의 지정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으면 동 주민센터 및 보호자에게 위기 문자를 보내는 앱이다. 대상자 이름, 휴대폰 미사용 시간, 위치정보 등의 내용이 전송되어 받는 이가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달부터 명예사회복지사, 우리동네돌봄단 등 복지 공동체와 함께 중장년 1인가구 중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앱 설치 대상을 발굴하고 있다. 1차로 11월까지 88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앱 설치 및 이용방법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등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있다. 이후



위기문자가 전송되면 수신자는 즉시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확인 불가 시 가정에 방문한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119, 112 등과 협력해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돌봄 서비스, 경제적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사각지대 주민 등으로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독거어르신 및 중장년 고독사 위험 222가구에 건강·안전관리 솔루션(IoT) 및 스마트 플러그도 지원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 구로주민 1차 백신접종률 35.4%

## 백신부작용 신고도 늘어 누적 사망 4건 등 718건

구로구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관내 만18세 이상 내·외국인을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약 33만 5천여명이다. 구로구 전체 주민 43만여명 중 77%다. 이 가운데 지난 7월6일 현재 1차 접종을 마친 주민은 11만8,642

명으로 접종 대상 주민 33만 5천여명의 35.4%가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 접종을 마친 주민도 3만 1,243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접종대상자만 보면 1차 15만3,981명 가운데 11만8,642명이 접종을 마쳐 77%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접종률은 평균 81.6%다.

이와 함께 부작용 신고도 늘어나 지난 3월 첫 백신 접종 이후 관내 백신 부작용 건수는 718건으로 집계됐다. 구로보건소가 밝힌 백신 부작용 신고 718건을 증상별로 보면 6일 현재 △사망 4건 △아나필락시스 5건 △기타 6건 △경미 증상 703건으로 집계 됐다. <채홍길 기자>

# ‘코로나 접종’ 스티커·종이증명서 발급

## 동주민센터서 백신 1회 이상 접종 주민 누구나 신청

구로구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맞은 주민에게 백신접종 스티커와 종이증명서를 발급한다. 구는 “이번 발급 서비스는 예방접종증명서(종이증명서) 휴대 및 전자증명서(질병관리청 COOV 앱)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실시한다”며 “백신을 1회라도 맞은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스티커에는 접종 회차, 일자 등이 표기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만 부착이 가능하며 종이증명서나 전자증명서

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또한 예방접종센터에서만 발급했던 예방접종증명서(종이증명서)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방접종 스티커·종이증명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광정희 자치행정과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각종 백신접종 증명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구로구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주민에게 동주민센터를 통해 백신접종 스티커와 종이증명서를 발급한다. 백신접종을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자치행정과 860-3354. <김유권 기자>

# 중소·벤처기업 온라인 진출 지원

## 우수 기술, 제품 보유업체 10곳... 21일까지 인터넷 접수

구로구가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다. 구는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발굴해 네이버스토어, G마켓 등 오픈마켓 입점을 돕는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창업 7년 이내의 관내 중소·벤처기업 10곳이다. 구로구는 마케팅 전문 업체를 통해 기업별 특성에 적합한 오픈마켓 진출을 지원한다. 마켓별 특징과 판매 전략에 따라

맞춤형 제품 상세 페이지, SNS 마케팅 페이지 제작을 돕고 제품 사진 촬영, 동영상 제작, 스마트스토어 광고 등 홍보 컨설팅도 제공한다. 오는 10월에는 컨설팅을 통해 성과가 나온 기업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마케팅 성과공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업체, 컨설팅 전문가,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회사·제품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 이달 21일 오후 5시까지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venture.or.kr/#/home/home-main)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만수 기자>

# 전건호 시인, 세 번째 시집 '꽃점을 치다' 출간

## 명상시집 8차원적 우주적 사유 함축된 詩語들 '눈길'

된장과 고추장에 장아찌가 되어 버린 별난 시인이 있다. 사단법인 숲힐링문화협회와 한국장류발효인 협회를 이끌어가는 전건호시인(본명 전병하)이다.

사람이 한 생을 산다는 건 상처 받는 일이며 흔들리는 나무와 같다고 말하는 시인은 ngo를 이끄는 리더 답지 않게 섬세하고 눈물샘 자극하는 시어로 현대인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시인의 시어 속에는 은하계 저편 어느 별을 떠나 문득 지구별에 불시착한 이방인의 그로테스크한 자화상이 정밀하게 묘사되



면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면 눈을 떠야 하고 이웃과 부대껴야 하는 필연의 숙명을 타고 났으므로 아침마다 시동을 걸고 컴퓨터앞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낮선 이들과

어 있다. 시인은 탄식한다. 왜 내가 지나갈 때는 길가에 핀 꽃들마저 고개를 돌리고 의

전화를 한다.

회색문명 속에서 적응해나가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꽃점을 치다』로 승화시킨 전건호 시인의 3번째 심금을 울리는 명상시집에는 그의 8차원적 우주적 사유가 함축된 시들이 현상계를 넘어 피안의 경지로 기화되고 싶어하는 강렬한 바람이 농축되어 있다.

이 땅의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고 시인의 내면세계로 여행을 떠나볼 일인 바, 목련꽃 피던 전건호 시인의 봄날의 풍경을 엿보는 것도 여여하지 않을까 한다. <김유권 기자>

# 순수문예지 '문학광장' 89호 발간

## '이달의 시인' '신작시' '신작 수필' '신작 소설' 과 신인문학상 시·수필·소설 당선작, 심사평·소감 실려

구로구 관내 순수 문학잡지인 격월간 '문학광장' (발행인 김옥자)이 최근 2021년 7-8월호인 통권 제89호를 발행했다.

이번 89호에는 김옥자 발행인의 '언어의 흔들림은 표현의 도단 건너편에 있다'와 김유권 문학광장 상임고문 겸 구로오늘신문 발행인의 '언어의 미학을 찾아 여행을 떠나자'란 제목으로 권두언이 실렸다.

7-8월 여는시는 이타린 시인의 '순환선을 타다'와 연재시엔 이만섭 시인의 '새소리'의 2편이 게재됐다.

'초대 칼럼'엔 김종위 문학광장 상임고문 겸 수필가(전 환경부장관)의 '백현 이경석과 매천 황현'

이 실렸고, '이달의 작가'에는 기라성 수필가의 '비, 웃음'의 1편과 송창재 수필가의 '구기자주'의 1편이 게재됐다.

신작詩로는 강혜지, 김만수, 김옥자, 모종락, 오현월, 유세영, 임명호, 정순미, 표천길, 한병진, 허남기 시인 등 34명 회원들의 주옥같은 시가 수록됐다.

또 신작수필엔 강정희, 김경업, 엄혜인, 황석현 수필가 등 7인의 작품이 실렸고, 신작 소설에는 주성란 작가의 '내주소'와 황선영 작가의 'oversize'가 게재됐다.

한편 신인문학상 당선작으로 시 부문에 김창산씨의 '장생포에서'의 2편이, 수필부문에는 배한기씨



의 '엄마소의 울음소리'와 한지빈씨의 '구멍'이 실렸다.

또 소설부문에는 하성수씨의 '아름다운 인연'의 작품 및 당선소감, 그리고 심사평이 자세하게 실렸다.

특집으로 '제7회 황금찬문학상' 수상자 및 작품이 게재됐다. 시부문의 수상자는 김평, 김영순, 모종락, 박덕은, 심우중, 안중태, 오호연, 장운숙, 정순미 시인 등 9명이다.

또 수필부문엔 강정희 수필가(독일 거주)가 이름을 올렸다. <채홍길 기자>

초대시

## 보리쌀 선물

시인 김금분



죽마고우 재복이가  
군자리에서 농사 지은 햇보리를  
서너 뒷박 실하게  
보내왔다

너무 적어서, 아유 너무 적어서  
주면서도 미안해하는 친구 얼굴에  
한여름 땀별을 이겨낸  
보리밭 이랑이 어른거린다

검정 비닐 봉투안으로  
손을 넣어 만져보니  
방앗간에서 금방 짠 것이라  
뽀얀 분가루가 따뜻하게 묻어났다

나면서부터 고향에 눌러앉아  
농사짓고 소키우더니만  
이젠 단단한 알부자 되어서  
말소리조차 느릿느릿 급할게 없는  
보리밭처럼 푹 무른 재복이

별미로 맛보라고 조금 줬는데  
구수한 마음이 되레 별미라,  
큰술에 넉넉히 물을 잡아  
재복이처럼 은근한 불에 올려놓고  
그리운 부뚜막 그 옛날밤을 짓고 있다네

- 강원 춘천 출생
- 월간문학 신인상 시인 등단(1990년)
- 시집 <화법전환> 외 3권
- 한국시인협회·강원문인협회·춘천문인협회 회원
- 김유정문학촌장 역임
- 현 (사) 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장, 춘천 글소리 낭송회장.

## 60세이상 취업 원하시면 전화하세요 (경비/청소등 전문 무료 알선 기관)

100세 시대... 아직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과연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을까?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는 60세 이상 구직을 원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취업상담 및 구직 알선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전화 또는 방문해 주세요. ○준비서류 : 이력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월~금 09:00~17:00)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

구로구지회 (신도림역 2번출구, 02)852-459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8길 39, 1층



## 지구의 온도, 배울수록 내려갑니다

휴지 대신 손수건을 쓰는 습관  
탄소배출제로를 고민하는 학교

서울시교육청은  
손수건에서 태양광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생태전환교육으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1.5℃」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할 경우 극한, 고온, 호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시작합니다. QR코드로 접속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에 참여하세요

